



예경, <아트 라이브러리> 시리즈 1차분 펴내

다양한 시각에서 미술작품에 나타난 몸과 사회의 관계 조명

왔음을 강조한다.

예경이 <아트 라이브러리> 시리즈 1차분을 펴냈다. 이 시리즈는 사회학·철학·인류학·문화비평 등의 관점에서 미술에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예경 편집부는 “기존에 미술사로만 미술을 설명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의도에서 시리즈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나온 책은 몸을 주제로 한 <조각에 나타난 몸>(툼 플린 지음, 김애현 옮김)과 <사진에 나타난 몸>(존 폴츠 지음, 박주석 옮김), 그리고 <20세기 정치선전 예술>(토비 클락 지음, 이순령 옮김) 등 3권.

<조각에...>은 서양 조각에 나타난 몸의 변천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한 책이다. 고대 그리스의 대리석 석상부터 1990년대 거리의 퍼포먼스까지 몸을 3차원으로 재현한 조각의 의미를 추적한다. 지은이는 “신체가 금기에 도전하고 권력구조를 타파하려는 다채로운 형식 속에서 표현”돼

<사진에...>은 사진이 순수한 기록매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몸을 찍은 사진의 역사를 조망한다. 어린 소녀를 찍은 루이스 캐롤의 사진부터 차가운 느낌의 누드 사진, 모더니스트의 사진, 다큐멘터리 기법을 이용한 사진, 행위예술의 기록수단이 된 사진 등 다양한 경향의 사진을 분석한다. 지은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기대 몸을 ‘회화적 감성’ ‘사회적 관습’ ‘정치적 성향’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20세기...>은 20세기 미술과 선전의 관계 및 정치적 이미지의 해석방법을 다뤘다. 20세기 초반의 급진적인 미술양식과 페미니즘 미술, 파시즘과 공산주의 체제하의 정치선전 예술, 서구 민주주의의 전신 선전, 196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반체제적인 미술경향 등을 총망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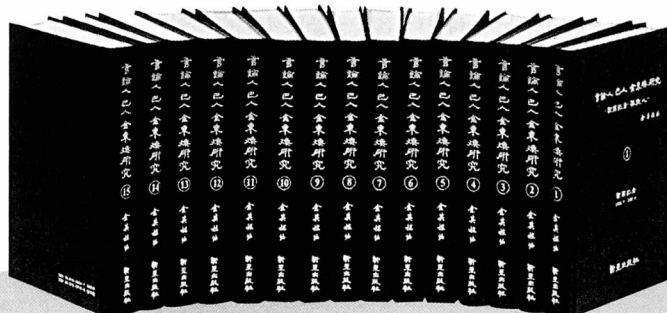
올해 말 출간될 이 시리즈의 2차분은 르네상스를 주제로 하며, 내년에는 한국미술을 다룬 책도 펴낼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

<언론인 파인 김동환 연구> 전집 나와

언론인의 면모 보여주는 파인에 관한 1·2차 자료 총망라

<언론인 파인 김동환 연구(전15권)>가 신성출판사에서 나왔다. 전집 형태로 출간된 이번 자료집은 신문기자와 잡지출판인으로서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 1901~?)의 전모를 보여준다. 이 자료집은 <파인 김동환 전집(전5권)>(국학자료원), <삼천리(전32권)> 영인본(한빛), <파인 김동환문학연구(전30권)>(논문자료사)에 이은 파인 연구의 ‘결정판’이다. 파인의 셋째 아들이기도 한 편저자 김영식씨(67)는 “원본을 모두 영인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다”면서 “아버지와 일제시대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 <국경의 밤>을 쓴 파인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저항한 시인이자 언론인, 출판인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언론인으로서 파인은 1924년 <북선일일신문> 기자로 시작,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했다. 1929년 7월에는 잡지 <삼천리>를 창간하고, <만국부인> <삼천리문학> 등의 자매지를 발간했다. 1942년에는 <삼천리>의 제호를 <대동아>로 바꿨고, 광복 이후 <삼천리> 속간호를 냈다. 그러나 일제말기의 친일행적이 문제돼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공민권이 정지됐다가 6·25전쟁 당시 납북됐다.

이번 전집에는 파인이 쓴 신문기사들과 출판 평론가·언론인 등이 파인에 대해 쓴 글을 실었다. 이밖에 파인의 전기와 가족관련자료, 파인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문헌을 수록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전집 13·14·15권이다. 13권에는 파인의 출판칼럼 등이 실려 있고, 14권은 1995년 출간된 <삼천리> 영인본 이후 수집된 <삼천리> 보유편을 실었다. 또한 파인의 작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15권에는 파인의 시 27편을 가사로 쓴 가곡 72곡과, 파인이 시가에 관해 쓴 글 등을 수록했다.

- 김정은 기자